“뇌과학자는 영화에서 인간을 본다.”

‘스맛푸’(Smart Pooh)라고 불리는 정재승 박사. 최근에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알게 되었는데, 이 책을 선택하기 전까지도 알지 못 했던 사람이었다. 우연이 우연을 거듭하듯, 독서클럽에서 제목으로만 관심이 갔던 책의 저자가 정재승 박사라니 정말 신기했다. 신기함을 넘어 이 책을 읽는 것이 운명처럼 나에게 온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다. 책을 한 장, 두 장, 그리고 한 파트를 읽어가면서, 평소 집중력이 떨어졌던 내가 최고의 집중도를 보이며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또,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영화광에 심리를 공부하는 나로서, 이 책은 잊어버린 퍼즐 몇 조각을 다시 찾은 듯이 반갑고 안도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심리를 공부하면서 뇌과학자라는 미래를 막연히 꿈 꾸고 있었는데, 나의 취미이자 전부인 영화와 인물들의 심리를 대입해 설명을 들으니, 다시 희미한 열정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특히, 영화 ‘메멘토’와 ‘언브레이커블’을 인상깊게 봤기 때문에 특히나 그 파트들을 즐겁게 읽었다. 먼저, 영화 ‘메멘토’의 기억에 관한 것은 참으로 신비하다. 10분이 지나면 다시 기억이 ‘reset’된다는 현상이 너무 흥미로우면서도 기괴했다. 원래 기억은 뇌의 신경세포들이 시냅스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들의 연결강도가 높아지면서 저장된다. 하지만 영화에서 주인공은 그 네트워크가 끊어지면서 기억을 잊는데, 그 주기가 10분이라니 비현실적이면서도 충분히 그럴 듯 하다고 느껴졌다. 치매와 비슷하면서도 단기기억증인 그 증상은 어쩌면 큰 충격을 받고, 자의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컴퓨터의 기록처럼 모든 기억이 지워진 것 같았다.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은 자신에게 직면한 사건을 해결하려고 기억들을 몸에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단지 신체적으로 뇌에 문제만 온 건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 기억들도 자신이 꾸미고 조작한 거짓이었다는 결말이 어이없으면서도 신선했다. 이 영화를 해석한 책을 읽다 보니, 만약 나도 단기기억증 환자라면 어떨지 상상을 해보았다. 혹은 상상을 할 필요없이, 내가 나이가 들어 치매가 온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에 잠겨보니 꼭 일기를 써야 한다는 대답을 얻었다. 기억이 사라졌을 때, 다른 사람의 서술을 통한 나의 모습이 아닌, 주관적이라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기쁠 것 같다는 소망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 영화 ‘언브레이커블’에서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치명적인 유전병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약점과 반대되게 가장 튼튼한 뼈를 갖고, 강한 생명력을 가진 자를 찾는다는 설정이 흥미로웠다.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내성적인 아이와 외향적인 아이가 절친한 사이가 되거나,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과 어울리고,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가 같이 모여 가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신에게 결핍된 것이나 성향을 갖고 있는 상대방에게 대리만족을 하는 모습은 흔하다. 영화에서는 유리처럼 작은 충격에도 부서지는 뼈를 가진 사무엘 잭슨은, 반대로 튼튼한 신체와 불멸에 가까운 생명력을 가진 브루스 윌리스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 과정에서 많은 테러를 일으킨 사무엘 잭슨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브루스 윌리스를 영웅으로 살아야 한다고 설득한다. 물론 그 를 만나기 전까지 스치거나 살짝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으스러지고, 오랫동안 병원신세를 지며 고질적인 유전병을 가진 그는 무기력해지고 삶의 희망을 자주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건강한 이상적인 영웅을 선망하기 시작했다. 점차 그 선망이 집착이 되었을 때, 도덕적인 관념을 무시한채 살생을 일반화하고, 한 목표만 바라보며 걸어 온 그를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는 장애인이었고, 그는 스스로를 세상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수없이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평생 병에 얽매어 살아오면서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느낀 고통을 다른 사람들도 죽음을 통해 공유한 방식은 삐뚤어진 악행이다. 오히려 유전학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병을 개선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방식이, 자신을 악인에서 선인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다.